



군종주보

2024년 1월 28일(제1178호)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본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심을 넘어서”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부분인데 제자들을 뽑으신 이후 첫 활동을 시작하시는 부분입니다. 인상 깊은 것은 예수님의 첫 활동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의 말씀과 업적을 묵상하는 날’이며,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날이고’, ‘쉬신 날’이며, ‘당신의 영광 속으로 다시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업적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활동하시면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의 근본인 하느님의 말씀과 업적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독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직접 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다시는 저희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곧, ‘그들의 동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과 업적을 살피게 하는 안식일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에게 반대하는 마귀들의 활동에 맞서 싸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쉬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분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오늘 2독서의 말씀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질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전해줍니다. 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혼인하셨기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실 텐데, 이와 더불어서 이 모든 순간을 마련해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복음이 들려지는 오늘, 2독서의 혼인과 연결하여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몇 구절이 떠올라 책의 내용을 일부 적어 보며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께 뜻깊은 날이다. 그날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 세계에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안식일은 신부이고, 그 인식은 결혼식과 같다. ... 신부가 사랑스럽고 이리따뜻이 안식일도 사랑스럽고 이리따우며, 신랑이 가장 좋은 옷을 입듯이 우리도 안식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하며, 하객들이 혼인 잔치 기간 내내 즐기워듯이 우리도 안식일에 즐기워해야 하며, 신랑이 혼인일에 일을 하지 않듯이 우리도 안식일에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의 현인들과 성인들이 안식일을 신부라고 부른 것은 그 때문이었다. ... 안식일을 마감할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당신은 하녀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 결혼이 완성되는 것과 유사하다.”

『인식』, 이브리함 헤셀, 118~119쪽 발췌



원신희(토마스) 신부
동해(육군 제22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신명 18,15-20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1코린 7,32-35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 음
영 성 제 송

마르 1,21-28

주님, 당신 얼굴 이 중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두 번째 시집

신부님께서 저에게 서한을 보내주셨을 때, 유럽 신자들에게 감동이 되거나 표양이 될 만한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이 있으면 적어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들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필요한 증인이 없어서 확증된 것을 많이 수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839년에 조선 교회 전체를 휩쓴 기해 대박해 때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골에 살았던 관계로 왕도(서울) 사람들에게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 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하던 때에 그 순교록(기해일기)에서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의 행적에 대한 구술 내용을 적어 놓은 종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 및 잘 알려진 친구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이름은 최해성(崔海成) 요한입니다. 그는 충청도 남부 지방의 신자 부모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충명 양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므로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 박해 때 그의 조부가 귀양을 가게 되어 온 집안이 그 조부를 따라서 귀양소까지 갔습니다. 그곳 고을에서 요한이 장성하였는데, 주위 정세로 보아 외교인들 한가운데 살면서는 천주교를 합당하게 실천할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작은 교우촌을 형성한 다음, 모든 이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착한 표양으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비참한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항구한 인내심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 가난 중에도 자기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애공 시사와 자선 사업 등을 꺾하지 않았습니니다. 천주교의 모든 본분을 이행하는 데 뛰어난 열성을 다하고, 신자들을 격려하며 비신자들을 권면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 마을에 선교사 신부님이 오셔서 성사의 은총을 받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열심에 불탔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 빛안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

빛을 나누는 사람들.

빛을 품은 사람들.

빛이 되어 사는 사람들.

하나의 빛안에서

우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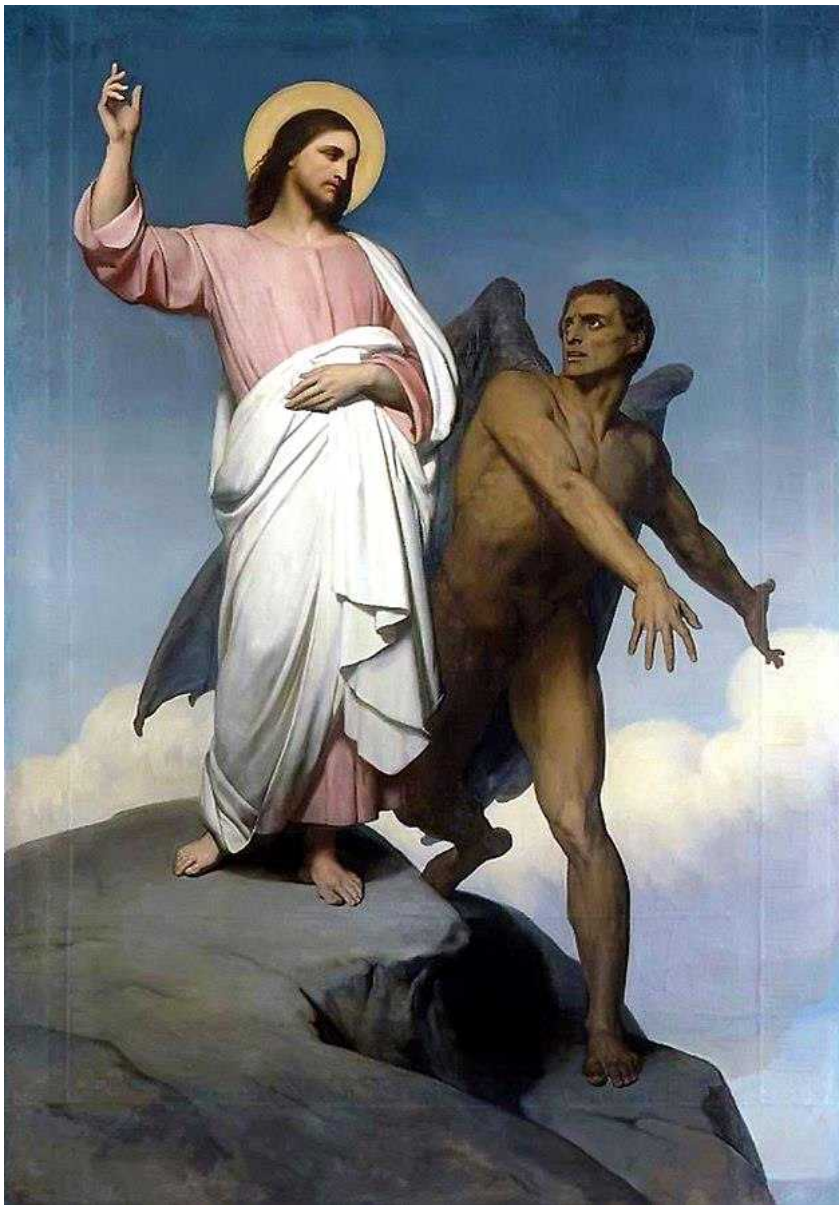
행복한 사람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예수님을 유혹하는 악마



예수님이 광야에서 단식하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하는 악마를 묘사한 작품으로, 인물 중심으로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나지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마르 1,24)

에어리 웨피
(1795년 ~ 1858년)
1854년경 제작
리버풀 미술관
영국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4주일: 지성대 강재욱 신부

◆ 교구장 통장

- 천성대(제17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1월 28일(주일)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때·곳: 1월 31일(수) 11:00, CBCK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화해의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